‘교육 비리’ 검찰 소환 업자 자살

피의자 신분 출석일 오피스텔서…“내가 입 열면 여럿 다친다”

“내가 입 열면 여럿 다친다.”

교육계 관련 비리로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50대 전기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기업자는 숨지기 수일 전 교육청과 관련된 공사나 각종 기자재 납품 등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전기업자 박모(55)씨가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박씨의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부인은 경찰에서 “전날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열쇠수리공을 불러 사무실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시신이 발견된 화장실에는 라디오가 켜진 상태였다. 책상 위에서는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박씨가 숨지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에는 “그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7일 오전 부인에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전기공사 면허증을 가진 박씨는 최근 공사 및 납품 수주와 교사 채용 등과 관련된 교육계 비리를 조사 중인 광주지검으로부터 7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박씨는 자신의 업체 명의로 직접 공사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직간접으로 공사를 수주해 제3자에게 소개해주거나 기타 교육청 관련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교육계와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검찰 수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박씨가 며칠 전부터 “괴로워했다”는 가족의 말에 따라 검찰 출석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계약과 관련해 교구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용역계약 알선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07년 행정실장 이어 또 자살…교육계 비리 왜 끊이지 않나

검·경, 공사·납품 금품 수수 전방위 수사

교육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50대 전기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교육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학교 행정실장이 자살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었다.

9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과 경찰은 광주·전남지역 교육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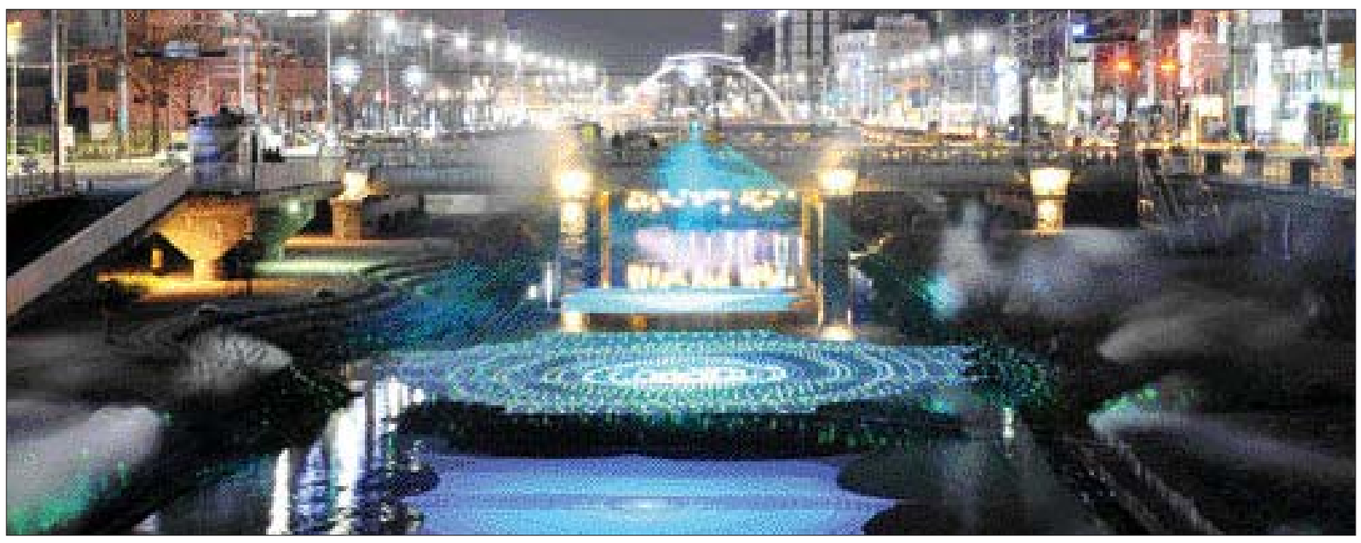
광주동부경찰은 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 직원 B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30일 교구 납품을 대가로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교구납품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또 공사 수주를 위해 일선 학교에 금품을 건넨 혐의가 포착된 창호제작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최근 불거진 교육비리 의혹들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에는 학교 시설물 개·보수나 무인경보시스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맺은 일부 학교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광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학교 신설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교 행정실장 A씨가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었다. 또 2006년에는 중국산 물품을 납품받은 9개 학교 관계자 등 47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교육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세계광엑스포의 2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빛 축제’(광주 빛으로 물들다)가 9일 오후 8시 점등식을 갖고 5일간의 행사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천 중앙대교에서 ‘레이저 매트릭스 쇼’가 펼쳐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고을 광주, 빛으로 물들다

광엑스포 빛축제 점등…5일간 금남로·광주천 빛 향연

지난 2일 시작된 광주세계광엑스포의 2대 행사 가운데 하나인 ‘빛 축제-광주 빛으로 물들다’가 9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5일간 광주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광주천 등에서 열린다.

레이저쇼와 경관 조명, 건물 영상쇼로 구성된 빛 축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과 쿠알라룸프르 쌍둥이 빌딩 등 세계 유명 건축물을 빛으로 수놓은 빛의 거장 알랭 귈로가 총감독을 맡았다.

알랭 귈로와 함께 국내외 미디어, 조형작가 15명이 쇠락해가는 광주의 구도심을 빛으로 수놓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세계적인 수준의 빛 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건물 영상쇼 ‘Vital Force’(생명력)는 민주화의 성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미디어 작가 알렉산더 콜린카와 리오넬 코리아킨·광주출신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의 영상이 흐르고, 로랑 프랑소와의 레이저가 어우러진다.

광주의 숨결이 흐르는 광주천은 프랑스 최고의 레이저 테크니션으로 꼽히는 로랑 프랑소와의 작품으로 뒤덮이고, 수면 위에는 80여개의 LED 수면 볼이 떠다니는 김지아나의 작품으로 물들게 된다. 충장로에는 광주의 역사와 함께 한 광주우체국이 붉은색 조명의 ‘빛의 오페라’로 부활하고, 웨딩숍이 밀집해 있는 충장로 거리 150m 구간에는 흰색 오브제 조명의 ‘웨딩의 거리’가 들어선다.

이날 오후 8시에는 빛 축제 점등식과 함께 소녀시대를 비롯, 민경훈, 브라이언 등이 출연하는 ‘빛&빅 콘서트’가 옛 도청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日 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철회하라”

전남도교육위 결의문

전남도교육위원회는 9일 결의문을 내고 “일본은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육위는 결의문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교과서 왜곡은 다시금 침략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하라”며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위는 또 “일본 젊은이의 올바른 역사관,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왜곡된 역사교육을 반성하라”며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학적,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영토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조용한 외교 원칙에서 탈피, 전방위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정환 前광주일보 전무 별세

김정환 전 광주일보 전무이사가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김 전 전무이사는 지난 1956년 입사, 업무국장과 총무국장 등 광주일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최난오 여사와 2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 11일이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 교내 금연

매점 담배 판매 금지

조선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대학 최초로 교내 담배 판매를 중지했다.

조선대 생활협동조합은 학내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최근 14개 전 매점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시켰다.

생활협동조합은 9일 학교 건물 내에서의 금연 정착을 위해 담배 판매를 중지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생협 이사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협동조합은 지난 달 이사회를 열어 담배 판매 중단에 따른 흡연 학생과 직원들의 불편,

흡연에 따른 비흡연자들의 피해 호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이해 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담배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기홍상 조선대 홍보팀장은 “담배 구입이 어려운 흡연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학생과 직원들은 건강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억대 리베이트 수수 혐의

농협조합장 등 압수수색

광주남부경찰은 9일 위생매립장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정모씨와 사업자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씨는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을 지낼 당시 김씨가 위생매립장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2007년과 2008년 사이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김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와 김씨의 금융계좌 등을 확보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선관위 검찰 수사의뢰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자 김 모씨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30분께 김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구청장 적합도 1위, 여론조사도 1위 기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5만6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김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통장에서 지급돼 A씨가 김후보자와 공모해 불법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밝히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가게에 두려고…” 마트 소화기 훔쳐

쌍나팔

○…광주의 한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자신의 가게에 놓기 위해 훔쳐간 석유유통업자가 경찰서행.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8·광주시 동구 동명동)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대형할인 마트 3층 주차장 벽면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 두 대를 몰래 가져갔다는 것.

○…자신의 집에 위험물 저장창고를 설치해 석유유통업을 하는 김씨는 이날 음료수를 구입하려고 마트에 갔는데, 경찰에서 “평소 가게의 석유저장창고에 소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화기가 놓여있는 것을 보자 순간 욕심이 났다”고 진술.

○…경찰은 CC-TV의 화면을 분석, 범인이 타고온 차량 번호를 알아낸 뒤 김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 한자리에

12명중 7명 광주서 ‘수상자 회의’

내달 17일~21일 5·18 30돌 동참

바실 페르난도

가마지 자얀티

와르다 하피즈

말라라이 조야

닐라파이짓

라흐바니쉬

아흐메드 말리크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광주 인권상 역대 수상자 7명이 광주에 온다.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광주 인권상이 제정된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9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민중항쟁 30주년’과 ‘광주 인권상 제정 11주년’을 맞아 다음달 17일부터 21일까지 바실 페르난도 등 수상자 7명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기념재단에서 ‘역대 수상자 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 기간 동안 5·18 30주년 행사와 각종 기념 행사에 참여한다.

이 회의는 역대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의 활동 사항을 비롯, 자국의 민주인권 실태·광주의 민주화의 현 주소·나아갈 길 등을 주제로 열린다.

참가자는 역대 수상자 12명(1개 단체 포함) 중 모두 7명. 바실 페르난도씨(66·스리랑카·2회 수상자)·단데나 가마지 자얀티(여·51·스리랑카·3회 수상자)·와르다 하피즈 여사(여·58·인도네시아·5회 수상자)·말라라이 조야(여·33·아프가니스탄·6회 수상자)·앙카나 닐라파이짓(여·53·태국·6회 수상자)·레닌 라흐바니쉬(40·인도·8회 수상자)·무니르 아흐메드 말리크(60·파키스탄·9회 수상자) 등이다.

이들은 자국 내에서 5월 정신인 민주·인권·평화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민주·인권단체에서 도시 빈민·카스트제도·민주 회복·여권 신장·독재 타파·문맹 퇴치 등의 활동을 하며 민주·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바실 페르난도씨는 본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광주 인권상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또 우리 단체의 네트워크를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며 “민주화의 토대가 된 5월 정신은 위대하다. 아시아의 민주·인권·평화운동에 적잖은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초청했는데, 흔쾌히 수락해 줬다. 5월 정신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5월 정신이 아시아 전체 국가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권상은 (사)5·18 민주화운동 유족회에서 제정했던 5월 시민상과 고(故) 윤상원 열사 추모사업회의 윤상원상을 2000년 통합·제정한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미화 5만 달러와 금장메달이 주어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유족회 ‘자료로 본 5·18 30년史’ 발간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5·18 유족회)가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자료로 본 5·18민주화운동 30년史’를 발간한다.

모두 세 권(750쪽)으로 다음달 중순께 발간될 ‘5·18 역사자료집’에는시민군·계엄군이 배포한 유인물·성명서를 포함한 헌혈자 명단(5월 21일~23일), 독일·일본 등 해외에서 바라본 5·18, 5·18 민중항쟁 변천사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 80년 당시부터 97년 전두환·노태우 재판까지의 역사적 자료를 싣고 있다.

이들 자료는 5·18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행기자 go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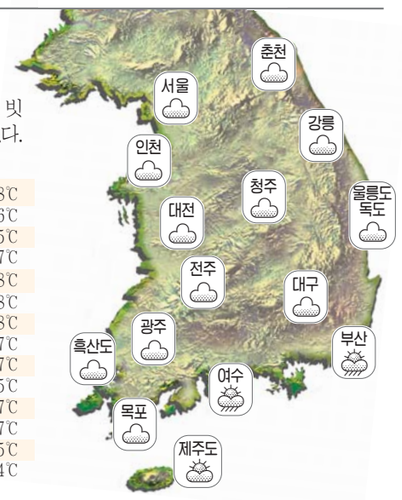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08분 해짐 19시 01분 달뜸 03시 39분 달짐 15시 09분

구름 낀 하늘

대체로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광 주	흐 림	9/18℃
목 포	흐 림	10/16℃
여 수	흐리고 한때 비	11/15℃
완 도	흐리고 한때 비	9/17℃
구 례	흐림	8/18℃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8/18℃
장 흥	흐리고 한때 비	7/18℃
고 흥	흐리고 한때 비	8/17℃
순 천	흐리고 한때 비	9/17℃
영 광	흐 림	8/15℃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8/17℃
전 주	흐 림	8/17℃
남 원	흐 림	5/15℃
흑산도	흐 림	9/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남동~남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먼바다	남~남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11:51 --:--	04:52 17:23
여수	07:03 19:07	00:35 13:0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날 씨						
최저/최고	11/20	12/17	8/12	4/13	3/15	3/17